

## 리 요한복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성경말씀: 요6:15-29

지난 주,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위대한 기적, 오병이어 기적, 2만 여명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함 창조 과학회 회장 김영길 박사님, 믿기 전에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믿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물질 보존의 법칙, 어떻게 빵과 물고기가 계속 늘어나는가? 대단히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 이분이 박사 졸업 후 미국 나사에 취직함, 1000여 명의 직원, 200여 명이 신우회 다 박사들, 과학자들,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이것을 믿나?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중지부를 찍는다, 그런데 머리를 들고 이 땅과 우주 위에 계신 분을 보아야 한다. 불신자들: 빅뱅에 의해 생겨났다. 쿙알 안에 우주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묻는다: 그 쿙알은 어디서 왔는가? 물질 보존의 법칙이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우주 밖에 계신 분을 믿는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무한한 분,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이렇게 물질이 생성되면 그 이후에는 물질과 에너지가 보존된다. 오병이어 역시 창조의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불어나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모았다.

오병이어로 충분히 먹고 조각들을 12바구니에 모으자 사람들의 반응(14)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신18:15), 메시아 표적,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분의 파위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요5:24-24).

인본주의자들의 반응: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가 불렀다. 혹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숨겨놓은 도시락을 먹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불신 반응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15절을 보라, 억지로 그분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 함

주님의 손에서 빵과 물고기가 불어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함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왕으로 삼자.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 무한대로 크신 분

오늘은 15-29절 말씀, 15-21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함, 22-29, 무리들이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를 배우려고 주님께 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여 주심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의 특성, 혹시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이 부분을 잘 살펴보려 한다.

###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심(15-21)

예수님은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심(15).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은 재림 시에 이루어진다.

마귀는 주님의 공생애 시작부터 사람들을 동원하여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다.

인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시험한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시며 자기를 숨기신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때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일이 잘될 때 때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16절) 뱃새다를 떠나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감.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음(17). 큰 바람으로 바다가 출렁임(18).

그들이 25-30 스타디온을 노저어감. 1스타디온은 200미터, 5-6킬로미터를 감.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나타나심(19)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14, 막6장에도 기록된 중요한 일, 왜?

제자들은 요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왕국의 신비들 설명을 들음, 오병이어 기적, 무리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봄, 마음이 들떴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더욱 더 마음이 들떴을 것이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은? 더욱이 어머니까지 나서서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이들 앞에 폭풍우가 닥치는가?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의 목적이 있다. 마14:22, 주님께서서는 강권해서 그들을 먼저 보냈다.

그대로 두면 기쁨에 빠져 길을 잃을까 봐, 어쩌면 그것이 폭풍우보다 더 큰 위험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남. 목적: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오병이어 기적은 큰 교훈, 그러나 그 기적 이후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폭풍우가 닥침 인생의 폭풍우: 많은 경우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닥친다. 요나의 경우처럼 그런데 어떤 때는 순종하며 큰 성공을 이룬 뒤에도 폭풍우가 온다. 지금처럼 여기의 이 사건 요지:

1. 자만하지 말라. 2.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며 구출하심을 보여 준다. 이 사건에는 몇 가지 기적들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 중력의 법칙 위배, 잠시이기는 해도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마 14:28-32). 예수님은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막6:51, 바람이 그치고 물에 도달하니 제자들도 놀람, 이유: 빵의 기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질 보존의 법칙, 바다 위를 걸음, 중력의 법칙 위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가?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믿는다. 우리는 바로 이런 구원자를 믿는다.

이런 분이랴 우리의 죽은 몸을 무덤에서 일으킬 수 있다. 휴거도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과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 결과 제자들의 반응: 마13:33,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런 기적을 두 번이나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분을 믿는다.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22-29)

사복음서를 읽으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마음속도 아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은 연거푸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다음 날: 벧새다에 있던 무리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함(22)

거기에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갈 때 타고 갔던 배 외에 다른 배는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다. 제자들만 탔다(22).

그런데 가버나움 밑에 있는 디베랴에서 다른 배들이 사람들을 태우고 옴(23)

아마도 이 배들에는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타고 있었음

집에 갔다가 궁금해서 다시 그 기적의 장소로 옴.

그들이 와서 보니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으므로 물어서 그분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감(24)

그들은 그분을 만나서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25)

예수님의 말씀(26-27)

그들의 질문(28)

주님의 말씀(29)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살피려 한다. 혹시 내 일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제자들은 주님을 찾기 위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랐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신다(요2:25).

원래 그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 이유: 기적 때문임(6:2)

지금 또 몰려온 이유: 빵을 먹고 배부르려고(26).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인간의 마음

기적들을 보고 끌려서 주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러나 이 무리들의 관심은 이제 빵을 배불리 먹는 것으로 전락하였다.

기적들은 보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기적, 변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요6장의 오병이어 기적, 만나와 하늘의 양식 이야기의 핵심(27)

27: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몸의 양식), 영존하는 양식(영의 양식)

몸의 양식: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양식: 그것은 다시 태어난 영이다. 이것은 영원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먹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생명은 선물이다.

빵은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난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얻어야 한다. 사55:12

내 말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신 자다(27).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확인 도장을 찍은 자다.

28: 무리들은 27절의 수고하라는 말을 듣고 잘못 해석하여 그 양식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줄로 생각함, 그들은 예수님이 그 양식을 주신다. give라는 말을 놓쳤다. give는 gift 즉

선물이다.

유대인들의 왜곡된 교리: 율법주의, 전통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함

그래서 묻는다(28).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느냐? 복수, 그들의 전통들 600개

그러자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이다.

그것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것이다(29).

요즘 코로나 19 사태,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 필수적인 모임만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수의 성도들이 거의 매일 교회에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때문에 필수적인 모임에만 갈 수 밖에 없는 실정

그러다 보니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하 오던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교회나

목사의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맞는다. 그러면 교회도 예배도 불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한 가지가 필요하다(눅10:41-42).

이 말의 의미: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엡2:8-10

선한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 성경 읽기, 기도, 전도, 헌금, 교제, 애국

그런데 이것들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혹은 목사의 일이 된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 결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과 물리적 법칙에 한정된 신을 믿는가?

이런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장차 우리의 모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이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탐구해야 한다.

그러게 탐구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